

폐기처분 불량비료 재유통 “말똥”

J비료, 1000포대 제주 농민에 공급 ... 나머지 8000포대는 회수

심한 분진 발생으로 상품에서 제외된 불량 비료를 비료 제조기업이 몰래 유통시켜 말똥을 일으키고 있다.

N화학은 2004년 질소, 인산, 칼리에 유기질 성분까지 포함하는 20kg짜리 임상배합비료인 BB(Bulk Blending) 비료 2만9000여포대를 자체 브랜드로 생산해 제주도 농가에 공급키로 하고 자회사인 J비료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초기에 유기질로 배합된 야자(팜)박 입상(粒狀: 알갱이)이 포장·유통단계에서 미세가루로 부서져 살포과정에서 바람에 날리면서 농가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결국 N화학은 초기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비료 9000여포대의 유통을 중단하고, 채종박 등 입상이 잘 부서지지 않는 유기질 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2만여포대만 정상적으로 농가에 유통시켰다.

또 유통이 중단된 9000여포대의 원료와 임가공료를 모두 J비료측이 부담토록 2005년 정산을 완료하고, 해당 비료를 상품에서 공식적으로 폐기한 뒤 J비료측이 원료로만 활용토록 했다.

그럼에도 J비료는 불량비료를 2005년 말 북제주군 K농약에 헐값으로 넘겼고, 이미 1000포대가 농가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불법유통 사실을 접한 N화학 관계자는 “상품가치를 상실해 폐기한 제품을 사전협의도 없이 N화학 포장지 그대로 유통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도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비료 관계자는 “비료 성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분진문제 등 비료상태를 농가에 사실대로 알리고 정상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필요한 농가에 공급토록 농약 유통상에 전달한 뒤 계약했었다”며 “농약 유통상에 남아있는 8000여포대를 무조건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7>